

[27~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sup>

(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뿐인가.

언제 한 번은 불교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려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향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박봉우, 휴전선 -

(나)

득음은 못하고,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신명 한 가락에  
막걸리 한 사발이면 그만이던 흰 두루마기의 그 사내  
꿈속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 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더니

[A] 「오늘은, 왓새\* 울음 되어 우향산 출발을 다 적시고  
우포늪 둔치,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연영 꽃불 질러 놓는다

[B] 「살아서는 근본마저 알 길 없던 혈혈단신  
טיפ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흔들곤 했다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

[C] 「필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적막한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소목 장재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런 물살 몰아칠 때

[D] 「일제히 깃을 치며 동편제\* 넘어가는  
저 왓새들

[E] 「완창 한 판 잘 끝냈다고 하늘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도록 무르익힌다

- 배한봉, 우포늪 왓새 -

\* 왓새 : 왜가리의 별명.

\* 동편제 : 판소리의 한 유파.

(다)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암(吾心岩)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한다. 그보다도 조금 겸손한 누구는

세심암(洗心岩)이라고 불렀다 한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하여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깊은 단풍 빛에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盛裝),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러간 형묘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비긴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 조각. 이것은 분명히 자연이 흘려 놓은 예술의 극치다.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홍진(紅塵)에 물들 것을 염려하여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어귀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이곳까지 2등 도로를 끌어 오는 것은 본래부터 그의 뜻은 아니었을 게다.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의 예술을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 보다.

둘러보건대 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가 본 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잠깐 내 자신을 굽어보니 허영계 먼지 긴 의복, 그 밑에 숨은 먼지 긴 내 몸뚱어리, 그리고 또 그 속에 얽드린 먼지 긴 내 마음, 나는 그 텃기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새삼스럽게 부끄러워하였다.

(중략)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를 던지고 외투를 벗어 팽개치고 반듯이 누워서 눈을 감으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는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는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들의 위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심암을 두 번 세 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좋은 벗 떠나기란 싫은 것처럼, 좋은 자연에도 석별의 정은 마차가 진가 보다. 또한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는 멀리 있는 벗들이 갑자기 그리웁다.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심암에게 무언(無言)의 약속을 주어 버렸다.

‘내년에는 벗을 데리고 또 찾아오마’고.

- 김기림, 주을운천행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지어 주제 의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를 보여 줌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다.
- ③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 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 ④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교만한 태도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현대시 27~31번

2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소재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29. (가)와 (다)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천둥 같은 화산'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을, (다)의 '검은 절경'은 아름다움을 잃은 풍경에서 느껴지는 암울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세계를, (다)의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흠결 없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 ③ (가)의 끊어진 '정맥'은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를, (다)의 엄습하는 '찬기'는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절망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④ (가)의 '징그러운 바람'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모진 상황을, (다)의 '미친 바람'은 삶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를 상징하고 있다.
  - ⑤ (가)의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삶에 순응하는 존재를, (다)의 '바위'는 지나온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회회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의 화자는 '우포늪'에서 왓새 울음소리를 들으며, 득음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던 한 '소리꾼'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에서 고단하고 외로웠던 소리꾼이 평생을 추구했던 절창을 연상함으로써, 우포늪의 생명력이 소리꾼의 영혼을 절창으로 이끌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세계에서 창조되는 예술의 경지와 우포늪의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형상화한 것이다.

- ① [A] : 화자는 왓새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 지어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리고 있다.
- ② [B] : 득음의 경지를 찾아 떠돌았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는 삶의 비애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C] : 소리꾼이 평생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낸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상상적으로 떠올린 세계를 우포늪 일대의 현실적 공간과 결부하고 있다.
- ⑤ [E] : 날아가는 왓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여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3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다)를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반성적이고, 깨달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교훈적이며,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적 인 특징을 갖습니다. 글쓴이의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 내고, 글쓴이의 문체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활용되지요.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수필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 학생1** : 가을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그려 내기 위해 감각적인 문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 ㉠
- 학생2** : '예술의 극치'와 '장하지도 아니한' 예술을 대비하는 데에서, 인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 ㉡
- 학생3** : '오심암'의 경치에서 '검은 자연', '순결한 자연'을 이끌어 내는 데에서, 대상의 새로운 의미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요. .... ㉢
- 학생4** :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한다는 점에서, 사색을 통해 교훈을 얻는 수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
- 학생5** : '먼지 낀 의복'을 보고 '몸뚱어리'와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떠올린 데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

- ① ㉠      ② ㉡      ③ ㉢      ④ ㉣      ⑤ ㉤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2)</sup>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아  
마음에 흐고져 흐야 십재황황(十載遑遑)\* 흐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 흐야 여공불급(如恐不及)\* 흐는 뜻은  
세월이 물 흐르듯 흐니 못 이룰가 흐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흐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흐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흐노라 <제4수>

출(出)흐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흐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틀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흐오리라 <제8수>

2)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6~20번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뒤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흐느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혼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 견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 책을 읽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운운 하는 것을 자  
 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 세상에 나아가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떡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의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⑤ ‘글썽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옹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마야 울 엄마’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선포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3)</sup>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A]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스럽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융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지붕에 박넛출 남풍에 자라고 [B]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맺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C]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를저를 글 읽으셨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D]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옥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라면 [E]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나)  
 샨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있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땀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샨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샨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샨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춘수는 샨갈의 그림 나와 마을 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샨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현대시 33-35.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썼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울리브트'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4)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름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릅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꿈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조지훈, 「고풍 의상」-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팡 팡 얼어붙은 잔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부연(附緣):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겹으로 꾸민 것.  
 \*초마: '치마'의 방언.

26. (가)를 바탕으로 (나)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연적 시간이 작가의 의식에 의해 문학적으로 재구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 ② ㉡은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이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은 서정시에서 동작의 변화를 현재형으로 묘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④ ㉣은 과거와 현재를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간의 정확성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은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4)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26-29번 (2017년 6월 시행)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예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9. [B]를 중심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는 모습이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모습과 호응하여,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시적 화자에게로 이어짐을 보여 주는군.
  - ②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시적 화자의 애틋함을 여운으로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한 줌 뺏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켜, 아버지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④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과 ‘팡 팡 얼어붙은 잔등’의 대비를 통하여, 내면의 의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 주셨던 아버지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군.
  -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와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를 연결하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군.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5)</sup>

(가)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올 제, / ㉠홀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붙여놓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  
  
 수고론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나는 오직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 김현승, 「플라타너스」-

(나)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옥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러 나간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둥긋이 차고 넘치노나.  
 쪼그리고 앉은 한옆에 흰 돌도  
 이마가 유달리 함초롬 고와라.  
  
 연연턴 녹음, 수목색으로 짙은데  
 한창때 곤한 잠인 양 숨소리 설키도다.  
  
 비둘기는 무엇이 궁거워\* 구구 우노노,  
 오동나무 꽃이야 못 견디게 향그럽다.  
  
 - 정지용, 「달」-

\* 궁거워 : 궁금하여.

20.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형 진술을 통해 대상의 역동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상승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변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2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관조적 자세를, ㉡은 화자의 반성적 자세를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경험한 시련을, ㉡은 화자가 간직한 추억을 환기 한다.
  - ③ ㉠은 화자의 무기력한 태도를, ㉡은 화자의 담담한 태도를 표현한다.
  - ④ ㉠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을, ㉡은 앞날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한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와 (나)는 특정한 공간에서 사물과 교감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삶의 여정이자 구도적 공간인 ‘길’에서 이상 세계인 ‘하늘’을 지향하는 소망을 드러낸다. (나)의 화자는 달밤의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 심미적 공간인 ‘마당’에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 (나)의 화자는 ‘흰 돌’의 ‘유달리’ 고운 ‘이마’를 알아채는 모습에서 사물과의 교감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화자는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정을 드러내고, (나)의 화자는 ‘한밤’에 ‘밀물’처럼 밀려온 달빛을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는군.
- ③ (가)의 ‘창’은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나)의 ‘영창’은 화자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로서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하는군.
- ④ (가)는 반짝이는 ‘별’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나)는 차고 넘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느끼는 ‘마당’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군.
- ⑤ (가)의 화자는 ‘플라타너스’와 ‘이웃’이 되어 구도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소망을, (나)의 화자는 오동 꽃이 ‘못 견디게 향그럽다’고 표현하여 자연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는군.

5)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현대시 20-22번(2017년 9월 시행)

[20~22] 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6)</sup>

(가)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 앞내강 짹짹 열어 조이던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짐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 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 밝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한 가락 어디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조상 : 남의 죽음에 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문함.

(나)

한 줄의 시(詩)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귀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채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詩人)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다)

시(詩)는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 시에서 반영은 현실과 인생을 모방한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실을 시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역사와 현실의 상황을 시를 통해 어떻게 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반영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 주는 일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일상 현실을 넘어 화자가 지향하는 당위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이 경우 시는 그 자체로 시론 혹은 시인론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성격의 작품에서 시는 노래나 기타 여러 갈래의 글로 표상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인들은 시 속에 형상화된 세계를 통해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시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시인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한 자기 성찰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20. (가)와 (나)의 공통으로 가장 한 것은?

- ① 청자를 명시로 설정하여 풍자으로 비하고 있다.
-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시 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를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④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어 어조를 활용하여 실에 한 비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1. [A]의 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하지 않은 것은?

- ① ㉠: 극한의 추를 드러내는 시간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직면 하게 될 공간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에게 닥친 일상 실이 망인 상황을 노래에 투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 실이 희망으로 바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 밤과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 진 실에 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22. (다)를 참고하여, (가)의 「노래」와 (나)의 「묘비명」을 이해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가)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노래’가 시를 표상한다면, 이 ‘노래’는 시가 ‘짐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을 드러 내고 있겠군.
- ③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하고 있겠군.
- ④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라 할 수 있겠군.
- ⑤ ‘묘비명’이 시를 표상한다면, 이 ‘묘비명’은 한 의 시조차 읽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나)를 쓴 시인의 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겠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7)</sup>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었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  
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  
默)이 흠뻑 지리함죽 하며,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화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숙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꺾  
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솟이 된 뺨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울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다)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  
묻힌 초가집 굴퓌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질은 온도를 체형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  
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  
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  
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  
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러  
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릿한 내용을 갖게 한  
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  
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 하고 생각  
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  
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가지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  
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  
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죽 하’라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똥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 ~ 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7)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현대시 34-38번 (2016년 6월 시행)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 한다.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글쓴이는 '운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38. (다)를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은 ㉡감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와 ㉤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 봅시다.

- ① 현재는 없다. 지나간 과거와 끝없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 ② 우리는 둘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길을 걷는 영원한 벗이다.
- ③ 시간은 모순이다. 험겨운 시간은 천천히, 즐거운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 ④ 지식은 차갑다. 지혜의 따뜻함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북돋아 준다.
- ⑤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8)</sup>

(가)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 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 윤동주, 「병원」-

(나)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도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날은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 있는 그들은 어설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서 있었다.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아아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나는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 박목월, 「나무」-

19.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는 모두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하여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물의 속성을 분석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변주하여 사물이 연상시키는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⑤ (가)는 현재형 시제로 계절의 상징성을, (나)는 과거형 시제로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8)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현대시 19-20번 (2016년 9월 시행)

20.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의 ‘화자와 대상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대상에 공감한다. (가)의 화자는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에 주목하고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여자’가 지닌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행 중에 만난 ‘나무’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한다. 이를 통해 (가), (나)의 화자는 대상과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 ① (가)의 화자는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여자’를 관찰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여로에서 만난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본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에 대한 원망을 ‘여자’와 공유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꺾고 병실로 들어가는 ‘여자’에게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냄으로써, (나)의 화자는 ‘나무’들이 ‘외로워 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대상에 공감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그가 누웠던’ 곳에 ‘누워 본다’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대상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9)

(가)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면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지 낚아빠진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리라  
먼지 낀 잡초 우에  
잠자는 구름이여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썩  
스러울 수가 있을까

[A]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여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  
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보다  
날아간 제비와 같이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나)

함이정 : 처녀 때 난 생각했었지. 영리하고 듬직한 아들 하나 있  
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쁜 일 슬픈 일 뉘든지 의논할 수  
있는 내 아들…… 그러다가 너를 느꼈고…… 네 느낌과 이야  
기하길 즐겼다. 사람들은 나 혼자 중얼중얼거린다고 괴상하게  
보더라. 사실은 너와 나, 둘이서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조승인 :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 처음부터……?

조승인 :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 그뻘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  
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보니까 두 제자  
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  
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  
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  
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쫓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 넌 가만 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9) 201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현대시/희극 복합 (2016년 11월 시행)

**함이정** :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 동연아! 서연아!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동연** :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 밖에는 왜?  
**동연** :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 말다툼?  
**동연** : 네.  
**함묘진** :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 송구스럽습니다…….  
**함묘진** :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들이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 그런데, 너는?  
**서연** :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중략)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함이정** : 개울물이에요, 서연 오빠. 여기서 길은 끊겼어요.  
**서연** : (개울가로 다가가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며) 너도 마시렴. 목마를 텐데…….  
**함이정** :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 얼굴 뒤엔 구름이…… 구름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 물이 맑고 시원해요. [B]  
 (서연, 장난스럽게 개울물을 마치 눈덩이처럼 뭉치는 동작을 한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눈썹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함이정** :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 서연 오빠…….  
**서연** :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 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 조승인이 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개울물 건너

쪽, 부시도록 밝아진다.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면서 들어온다. 그는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간다. / 코러스(돌부처)들, 개울물을 건너가는 서연을 배웅하듯이, 따라가듯이, 마중하듯이, 서연과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며 간다. 개울 저쪽, 눈부시도록 빛이 밝다. ㉢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조승인** :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서연의 뒤를 따라 빛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27.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 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
  - ③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 ④ 화자는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보기>를 고려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와 이러한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 ①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 ② '나는 이미 정해진 ~ 결심하고'는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겠군.
- ④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하는 것이겠군.
- ⑤ '구름의 파수병'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화자의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이겠군.

29.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고, [B]에서는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
  - ⑤ [A]와 [B]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30. 무대 상연을 전체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
  - ② ㉡ :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
  - ③ ㉢ :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
  - ④ ㉣ : 등장인물이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다.
  - ⑤ ㉤ :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회시킨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공간이 화자의 내면이 투영된 상징적 공간이라면, (나)의 공간은 제한된 시간 내에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 줘야 하는 극의 특성상 극중 인물의 현실이 상징화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서, 공간들은 때로 대비되면서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 ① (가)의 ‘집’과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군.
- ②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기 위해 상징한 공간이군.
- ③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 공간이군.
- ④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하늘’과 대비되는 곳으로 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군.
- 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군.

32.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에서 함이정은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서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
  -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up>10)</sup>

(가)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밤이면 부엉이 괴괴히 울어 [A]

남쪽 먼 포구의 백성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의 어둔 바람이 불어오던  
 -용희(隆熙) 2년!

그래도 계절만은 천 년을 다채(多彩)하여 [B]

지붕에 박년출 남풍에 자라고  
 푸른 하늘엔 석류꽃 피 뻗은 듯 피어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C]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에서 저름저름 글 읽으셨다

왕고못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밝고 [D]

유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  
 번문육례 사대주의의 욕된 후예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신월(新月)같이 슬픈 제 족속의 태반을 보고 [E]

내 스스로 고고(呱呱)\*의 곡성(哭聲)\*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명(命)이나 길라 하여 할머니는 돌메라 이름 지었다오  
 -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

\* 고고 : 아이가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우는 울음소리.  
 \* 곡성 : 사람이 죽어 슬퍼서 크게 우는 소리.

1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현대시 33-35.

(나)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편다.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 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밤에 아낙들은  
 그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3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둬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 ④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비극적 상황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을 살아 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국적인 세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34.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음산한 시적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B] :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
- ③ [C] :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D] :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출생에 대한 감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 울음소리에서 연상되는 상반된 의미와 연결하여 화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 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군.
- ②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③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용한 것이군.
- ④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를 표상한 것이군.
- ⑤ ‘아낙’,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이군.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http://www.facebook.com/LegendStudy)



## 정답

###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27번 - 31번

27	①	28	③	29	②	30	⑤	31	④
----	---	----	---	----	---	----	---	----	---

###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6번 - 20번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	---	----	---	----	---	----	---	----	---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33		34		35		
--	----	--	----	--	----	--	--

###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26 - 29번

26	①	27	②	28	③	29	④		
----	---	----	---	----	---	----	---	--	--

###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20 - 22번

20	①	21	④	22	③				
----	---	----	---	----	---	--	--	--	--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	③	21	④	22	⑤				
----	---	----	---	----	---	--	--	--	--

###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34 - 38번

34	③	35	④	36	④	37	③	38	⑤
----	---	----	---	----	---	----	---	----	---

###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9 - 20번

		19	④	20	③				
--	--	----	---	----	---	--	--	--	--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갈래복합 27-32번

27	②	28	②	29	①	30	②	31/32	④③
----	---	----	---	----	---	----	---	-------	----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 기출 작품 목록

###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박봉우, '휴전선'  
 배한봉, '우포늪 확산'  
 김기림, '주을온천행' (수필)

###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시가복합)>

권호문, '한겨십팔곡' (고전시가)  
 박재삼, '추억에서'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 <2018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조지훈, '고풍의상'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2018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김현승, '플라타너스'  
 정지용, '달'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갈래복합)>

박두진, '현(香峴)'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박이문, '눈' (수필)

###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윤동주, '병원'  
 박목월, '나무'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갈래복합)>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희극)